

# ‘죽음명상’으로 삶의 완성 추구

김재성 교수 바른 인식으로 괴로움 극복 가능 정각 스님 마음챙김 통한 부단한 단속 중요

## 불교학연구회 ‘한국의 죽음문화와 불교’ 추계 학술대회

‘죽음(死)’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실존적인 문제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와 동서고금을 막론한 철학사상 또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자유의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 한계 상황(생로병사)의 극복을 추구하는 불교에서는 실존적 괴로움의 근원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을까.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는 11월 10일 중앙승가대에서 ‘한국의 죽음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2006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재성 교수는 논문 ‘초기불교에서 죽음의 명상’을 통해 초기불교의 죽음을 주제로 한 수행법 △부정관(不淨觀) △사념법(死念法) △죽음에 대한 상(想) 등에 다각

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우선 죽음에 대한 실존적 인식과 감각적 욕망을 끊는 방법으로 <대념처경>에 소개된 부정관에 대해 설명했다.

부정관은 사자(死者)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후 육신의 허망함을 깨달아 감각적 욕망을 끊는 수행법이다.

<대념처경>에서는 부정관에 대해 “비구들이여,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썩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바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의 이 육신도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아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나 마땅히 비구들은 생사에 대한 마음챙김의 한 방법으로 부정관을 닦을지니라”고 말했다고 있다.

죽음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수행법인 사념법(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 김

교수는 <양구따라 니까야>를 인용해 ‘인간의 목숨은 하루가 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하는 동안에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순간에도 죽음에 대해 잊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념을 닦으면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죽음이 없는 불사(不死)의 경지에 도달하고 이를 자각하면서 수행에 임하면 죽음을 초월하게 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또 “죽음에 대한 명상은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죽음으로 초래되는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을 완성하는 명상이며 죽음을 극복하는



김재성 교수



정각 스님

명상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한 동국대 겸임교수 정각 스님도 논문 ‘대승 불교에 있어 출생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윤회전생과 사유설(四有說)을 근거로 폭넓은 생명관을 전개했다.

정각 스님은 “불교는 죽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이전에 자아(Atman)의 존재규명을 통한 업(業)과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전제로 하는 종교”며 “이는 불교사상사들이 끌어온 핵심으로 선과 명상, 즉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꾸준히 탐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이 설한 사유설의 요지는 각자의 업력(業力)과 아뢰야식을 통해 현재의 존재와 죽음을 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유는 생유와 분유, 사유, 중유를 뜻하고 모태에 의탁해 태어나는 찰나, 이로 부터 죽음에 이르는 기간, 죽는 찰나,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각각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생과 죽음은 불연속과 단절의 의미가 아닌 무한의 연장선상에서의 찰나적 현상으로 인식해야 하며 매순간마다의 마음챙김(사피)으로 이를 부단히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8>

### 애완동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 그리고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급성장했다. 또 이 구아나, 뱀 등 혐오(?)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 애완동물에 대한 시가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옛날도 아닌 우리의 보릿고개 시절에는 서양 사람들이 애완동물 치장에 돈을 쓰는 것을 TV로 접하고는 분개했던 추억이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웬만한 시골 읍내 거리에는 동물 병원이 있고, 관련 상점도 있다.

동물과 인간과의 인연은 매우 오래되었다. 아마 가족이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것은 수 만 년 전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야생 상태에서 가족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가족화된 동물들과의 관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애완동물 숫자가 급격히 늘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든 좋은 우리는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인간과 함께 동물들도 진화해 왔다. 가족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이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발전된 병원균인 바이러스 또한 그러하다. 인간처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인간 주위에 독특한 생물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와 맞물려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습성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또한 소를 키우는 인간의 업보에 대한 자연

### 인간의 사회화 따라 동물도 진화, 상호 영향 관계

### “동물에게도 불성 있다” 생명체에 구원의 화두

계 또한 지방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다. 중동 지방과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의 유적에서 개(犬)들의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에서는 소에 대한 숭배가 남다르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인 소가 귀해서인지 아니면 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신령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선불교의 핵심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심유도에서도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소치는 아이, 그리고 찾고자 하는 나의 마음자리를 소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인도에서는 이러한 소가 천덕꾸러미 취급을 당하고 있다. 불현듯 도로에 나타나서 교통을 혼잡하게 만든다든가 배설물을 아무데나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

의 경고일 것이다.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오래된 불가의 물음이다. 부처님은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중세 중국의 선의 황금시대 수퍼스타 조주 스님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조주 무자’ 화두다. 부처님은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는 왜 없다고 했을까. 조주의 이 화두는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들에게 일침을 가한 방편일 뿐이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동물은 인간의 애완용으로만 치부한 서양의 전통에 비해 불가의 전통은 동물들의 세계까지도 철저하다. 불가의 철저한 성찰과 참회가 인간을 비롯한 지구촌 모든 생명체에게 구원의 화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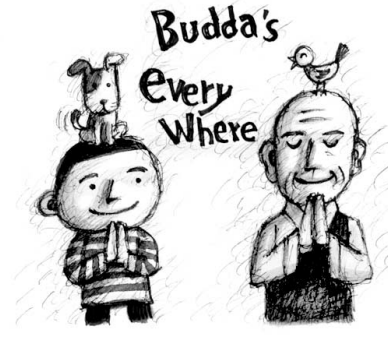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종교 본질 교육에 초점 맞춰야”

### 고진호 교수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서 주장

“종교교육은 종교의 지적 이해가 아닌 종교적 체험(종교적 지혜의 습득과 수행)을 강조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동국대 고진호 교수(사진)는 11월 1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탐색’을 통해 체험과 변용이 강조되는 과정중심의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행 종교교육의 당면 과제에 대해 고 교수는 “특정종교(교)파의 교리체계에 의해 보다는 종교적 본질체계에 기초한 인간의 영적능력의 개발, 성장, 초월적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이외에도 과학, 문화,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 하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같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래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종교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교과 중심적 지식전달이나 형식화된 종교의식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교)파의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는 있지만, 종교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종교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종교성(영성) 개발 저하 △종교교육의 내용적 체계와 결여 △종교교육과 생활활용의 변용 부조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교교육의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고 교수는



“수행은 초월적 존재와 인간을 결합시키는 체험의 장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us)’ 육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며 “묵상(默想), 정관(眞觀), 참선(參禪) 등과 같은 수행을 통해 고차원적인 영계인식(靈界認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종교교육의 과정은 종교 교과목이나 교과서적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험되고 실천되어야 할 ‘초월의 과정(transcendent process)’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생활을 종교적 초월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 공되는 실천적 삶의 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 ‘불교와 상담’ 학술연차회 18일, 밝은사람들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꾸는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은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회 학술연차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차회에서는 ‘불교와 상담-불교와 심리학적 방법론의 만남’을 주제로 불교와 심리학, 불교와 상담심리학의 상관성 연구와 접목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연차회에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현 교사의 ‘마음챙김 척도 개발 과정과 활용법’ 가톨릭대 김은희 교사의 ‘집착 척도 개발 과정과 활용법’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대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액의 수장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정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로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